

# 韓國의 資源開發과 그展望



玄炳九

(韓國動力資源研究所長)

## 1. 序言

資源은 人口增加와 文化의 進步 및 工業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需要是 急速度로 늘어가게 되며, 뒷받침하기 위해 人類는 資源開發에 努力を 기울이고 있다.

一般的으로 資源問題를 論할 때에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은 量的인 限界와 配分의 適正性을 거론하는 바 이는 資源의 偏在와 經濟性이 없으면 開發로 移行될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国内資源의 경우도 鉱種에 따른 地域의in 賦存偏在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鉱床의 規模에 따른 經濟性이 問題가 되어 開發이 안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經濟性이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概念으로 價格의 變化와 技術의 變化에 따라 可變의이며, 우리는 꾸준히 採查活動을 通한 鉱量確保와 이를 活用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索積하여 앞날에 備해야만 한다.

## 2. 国内鉱業의 役割

韓國의 經濟發展에서 鉱業은 產業이 별로 없던 60年度에 總輸出額의 42%를 寄与하여 外貨獲得로서 그 役割은 매우 重要하였고 本格的인 經濟開發事業의 推進과 더불어 内需用原資材供給源으로 큰 雖을 하고 있다.

특히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따라 金屬部門은 需要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国内資源은 오히려 供給量에 있어 미미하게 전락되었다. 그러나 시멘트를 비롯 요업부문 等 점차 非金屬類의 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80年度에는 内需가 94% (金額換算)에 達하여 앞으로의 產業發展에 발맞추기 为해서는 조속히 増產基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經常價格으로 본 輸出額推移는 60年度에 1,370万弗에 불과했으나 80年度에는 1億 2千万弗로 期間中 年平均 11.5%씩 增加하였다. 輸出을 主導하는 鉱種은 重石을 비롯한 一部 金屬資源과 黑鐵, 滑石等을 主로한 非金屬類이나 矫水록 非金屬類의 比重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같이 韓國의 鉱業도 그동안 成長을 해왔으나 他產業의 發展速度에는 훨씬 뒤떨어져서 GNP에 占有率은 60年의 2.0%가 80年에는 1.2%로 低下되었고, 内需擴大에 따라 輸出기여도도 80年에는 0.7%로 크게 줄어들어 앞으로의 方向을 国内資源產業에 대한 供給源이라는 点에 두고 国家產業政策目標에 맞춰 開發을 推進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 3. 国内資源의 現況

위와같이 鉱業의 發展이 늦은 것은 他產業의 發展이 위낙 빨랐기 때문도 있지만 이외에도 開發對象이 되는 資源賦存이 大体로 貧弱했다는데도 원인이 있다.

金屬資源의 경우 量的으로 絶對不足한 鉱種은 鐵礦石, 銅礦石, 朱錫, 크롬, 코발트等이고, 比較的 的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鉛, 亜鉛, 모리부렌, 豊富한 것으로는 重石을 들 수 있다. 即, 工業化的 基礎인 鉄鋼產業에 必要한 原料資源은 賦存潛在力이 아주 弱한 実情이다.

反面에 非金屬資源의 경우, 石灰石을 비롯하여 黑鉛, 滑石은 世界的의 資源國이고 그외에 高嶺土를 비롯한 粘土鉱物과 硅石, 重砂資源도 매우 豊富하게 賦存되어 있다.

또한 活用技術의 發展에 힘입어 用途도 점차 多樣化되고 있으므로 非金屬資源의 重要性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燃料資源의 경우 無煙炭을 除外하고는 아직 活用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동안 꾸준히 努力を 기울여 비록 品位는 낮지만 多量의 乌拉늄資源을 確保한 바 있고 앞으로의 探查에 따라서는 그 量이 더욱 늘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며 大陸棚에서의 石油開発도 期待되고 있어, 비록 지금은 에너지의 大部分은 海外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들이 開發될 경우 海外依存率을 줄일 수 있다는 点에서 에너지資源의 確保는 安保 못지않게 重要하다 하겠다.

#### 4. 資源開發技術의 重要性

資源은 있다고 해서 손쉽게 開發되는 것은 아니고 條件이 맞아야만 된다. 그 條件으로는

- 1) 需要処가 있어야 하며 2) 開發經濟性을 가져야 한다는 点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市場도 있어야 하지만 開發로 利潤을 남기지 않으면 死藏되어 活用치 못하고 쓸모없는 둘째이로 남을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지금까지 国內資源의 開發은 技術의 落后로 用途開發에 依한 需要擴大나 原價切減에 依한 經濟性提高, 또한 鉱業의 主資本인 稼行對象 鉱種의 鉱量確保가 없이 短期의 操業만 行해와 高品位鉱의 不足과 이에 따라 計劃採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仁약한 確保鉱量을 갖고 있을 뿐이었고, 갈수록 深部化가 되어 原價上昇도 이에 比例해서 積極적인 技術開發이 없이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活用技術의 開發은 우리나라에 많은 低品位鉱의 開發, 未活用資源의 開發誘導를 비롯하여 實收率을 높혀 資源을 보다 効果的으로 利用하는 길을 열어주며 探查技術의 蓄積은 深部에 묻혀있는 鉱体를 對象으로 해야만 하는 우리의 実情에서는 大型 綜合 探查가 요구되고 이에는 高度의 技術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그 重要性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開發技術은 深部化에 따른 事故防止와 原價의 直接的인 切減을 기할수 있어 資源開發을 為해서는 이들 3개 分野의 技術이 同一한 水準으로 向上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 5. 結語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国내資源開發을 為해서는 解決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

따라서 韓國動力資源研究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為해 資源確保에 努力하는 한편 이의 開發活用을 為한 技術研究에 힘을 쏟고 있다. 물론 일개 機關만으로 이러한 問題點들이 쉽게 解決될 수는 없는 일이고 產學協同下에 長期的으로 꾸준히 努力할 때 비로서 可能한 일이므로 모두가 資源開發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함께 매진해 나갈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미 우리의 主民需用燃料인 無煙炭鉱의 開發合理化를 為한 採炭機械化研究는 現場에서의 適用 단계에 가 있으며, 低品位 乌拉늄鉱의 開發研究도 이미 基礎試驗을 끝내고 開發를 기다리고 있다. 그외에 航空探查를 来年부터 計劃하고 있어 資源探查에 있어 세로운 章이 열릴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따라서 여지껏 資源이 적다는 理由만 내세워 開發을 소홀히 해온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能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